

정원

미를 창조하기 위한 독특한 요소의 결합



일본 정원
(사진제공 : AFLO)

일본식 정원의 특징

일본의 정원은 나무와 관목뿐만 아니라 바위나 모래, 인공 언덕, 연못 및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서양 정원에서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나무와 돌과는 달리 일본의 정원은 전통적으로 최대한 인공적으로 보이지 않게 자연을 모방한 풍경을 구성한다.

정원사는 풍경을 구성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따른다. 그것들은 축적의 축소, 상징성 그리고 “빌려온 경치”이다. 첫 번째 것은 한정된 공간에 산과 강의 자연경관을 재구성하기 위한 자연경관의 축소를 나타낸다. 이것은 도시 내에서도 산 속 마을의 이상적인

경관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상징성은 흰 모래를 사용하여 바다를 표현해내는 것과 같은 추상성과 관련이 있다. 정원사는 그들이 산이나 바다와 같은 정원 바깥 너머에 있는 배경의 경치를 사용할 때 “경치를 빌려오며” 그것들은 구성된 풍경의 일부가 된다.

한 학파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 정원의 기본적인 구성은 돌과 그것들이 배치된 방식이다. 고대의 일본인들은 돌로 둘러싸인 곳은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곳을 ‘아마츠 이와사카’ (천상의 경계) 또는 ‘아마츠 이와쿠라’ (천상의 자리) 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뾰족한 나무들의 무리를 ‘히모로기’ (신성한 울타리) 라고 불렀으며 성스러운 땅을 둘러싼다고 생각했던 호와 시내는 ‘미즈가키’ (물의 울타

리) 라고 불렀다.

일본 정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언덕과 연못으로 구성된 ‘츠키야마’ (언덕 정원) 와 언덕과 연못이 없는 평평한 장소인 ‘히라니와’ (평평한 정원) 이다. 먼저, 저택의 중심 정원은 언덕 형식으로 구성하고 제한된 공간은 평평한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다도와 ‘차싯스’ (다실) 이 도입되면서 후자가 더 유행하게 되었다.

고대의 정원

최초로 알려진 정원은 아스카 시대 (593-710) 와 나라 시대 (710-794) 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원사들은 야마토 지역 (현재의 나라현) 에 있는 황실가문의 정원과 세력이 있는 일가의 정원을 넓은 연못에 섬들로 장식하고 “해안” 으로 에워싼 바다의 풍경을 모방한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때 당시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 불교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그곳으로부터 온 이주민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돌 분수와 다리와 같은 대륙적인 영향을 일본의 정원에 가미하였다.

신덴 - 즈쿠리 스타일의 정원

794년에 일본국의 수도는 나라에서 교토로 이전하였고, 헤이안 시대 (794-1185) 가 시작되었다. 후지와라의 귀족가문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귀족적이고 고유한 풍습에 영감을 받은 예술과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귀족들은 ‘신덴 - 즈쿠리’ 형식으로 지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으며 이 시대의 정원도 역시 화려했다.

여러 개의 강이 교토로 함께 흘러들었으며 사람들은 물이 도시의 다양한 지역으로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팠다. 교토의 여름은 덥고 습하므로 사람들은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연못과 폭포를 만들었다. 건물 사이와 저택의 정원을 가로질러 흐르도록 ‘아리마즈’ 라고 하

는 개울을 만들었다. ‘후나 아소비’ (놀잇 배) 형식으로 만들어진 타원형의 연못은 종종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넓었으며 밖으로 나와 물을 덮을 정도로 넓은 낚시 천막을 저택의 다른 건축물들로 통하는 회랑에 씌워 낚시도 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었다. 주요 건물과 연못 사이에 넓은 구역은 흰 모래로 덮여있었는데 이곳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기에 좋은 그림 같은 장소였다.

정원의 또 다른 종류로, ‘슈유’ (소요)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산책하는 사람이 다양한 풍경을 즐기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걸어 갈 수 있는 길이 나 있다. 그러한 정원은 종종 헤이안, 가마쿠라 및 무로마치 시대의 사원과 대저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교토의 사이호지 사원의 정원은 무로마치 시대에 무소 소세키 승려가 만들었으며 전형적인 “소요” 정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정원은 연못이 배경의 산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조도 - 스타일 정원

10세기 일본의 귀족 정치는 불교 수행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도 (정토) 라고 알려진 낙원의 개념에 대한 믿음이 전파되면서 정원은 경전과 종교적인 책자에서 묘사한 조도의 이미지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이 정원은 고대의 일본 정원의 결정체를 표현하였다. 이런 종류의 정원에서 중심은 중앙의 섬과 연결된 다리가 놓인 연못이었다. 우지 (교토 근처) 에 있는 한 사원인 보도인의 정원은 조도 형식으로 건축된 정원의 좋은 예이다. 이 절은 원래 그 시대의 권력자였던 후지와라조 미치나가가의 고향집이었다. 사회의 엘리트들이 정원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은 그들이 쓴 수많은 뛰어난 평론의 주제가 되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사쿠테이키’ (정원 조성에 대한 논문) 이다.

젠 종파의 정원

일본 정원의 황금기는 무로마치 시대(1338-1573)라고 한다. ‘센즈이 가와라모노’(산, 시내 및 강바닥 사람)라고 불리는 숙련된 장인들의 무리가 ‘가레산스이’(산의 마른 시내)라고 하는 새로운 정원 양식을 고안하였다. 선불교에 큰 영향을 받은 이 정원들은 극단적인 추상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바위들로 산이나 폭포를 나타내고 흰 모래를 흐르는 물 대신에 사용하였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정원은 황무지산과 마른 강바닥을 그린 중국의 수묵화 풍경에 영향을 받은 것일 것이다. 그 예가 바로 교토에 있는 료안지와 다이토쿠지의 절에 있는 바위 정원이다. 단 15개의 바위와 평평한 땅에 덮인 흰 모래로만 만든 료안지의 정원은 전형적인 평평한 형식의 정원이다.

또한, 이 시대의 정원들은 ‘도코노마’(반침), ‘지가이다나’(엇갈린 선반), 및 ‘후스마’(한지 미닫이문)를 포함하는 ‘쇼인 - 즈쿠리’라고 알려진 건축 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오늘날의 전통적인 일본 집에 있는 기본적인 정원으로 사용된다. 이 ‘건소’ 또는 ‘자칸(명상)’ 양식에서 관찰자는 ‘쇼인 - 즈쿠리’ 건물에 있는 방인 ‘쇼인’에 있게 되며 그가 감상하는 경관은 주의 깊고 광범위한 감상이 필요한 멋진 그림처럼 한 폭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다.

료안지(교토)

사원의 유명한 젠 스타일의 마른 풍경식 정원이 3면으로 된 낮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정원은 오직 흰 자갈면에 놓여있는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독특한 15개의 돌로만 이루어져 있다. (사진제공 : 료안지)



차 정원

조용한 정신세계를 표현한 차 정원은 센노리큐(1522-1591)가 가르친 것처럼 다도와 함께 발전되었다. 인공성을 배제하고 고귀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 정원은 다실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일본의 정원은 디딤돌, 석등 및 나무의 무리와 같은 차 정원에서 이어받은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손님이 차를 대접받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계된 전망대도 차 정원에 기원을 둔다.

가이유 - 스타일 정원

수 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정원의 다양한 양식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이르러 봉건 영주들이 만든 ‘가이유’(큰 유희) 정원으로 통합되게 된다. 유명한 경관의 작은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바위와 나무들을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중앙의 연못을 감상하면서 하나의 작은 정원에서 또 다른 정원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초기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교토의 가츠라 별궁의 정원은 중앙의 연못과 주위를 둘러싼 몇 개의 다실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이유’ 형식의 정원이다. 이 정원은 독일의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의 저서를 통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교토의 또 다른 유명한 정원은 교토 황궁 정원이다. 17세기에 건설된 이 정원은 오이케니와라고 불리며 이 말은 “연못 정원”이라는 뜻이다. 몇개의 소나무로 장식된 섬들이 있는 넓은 연못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629년에 만들어진 고라쿠엔 정원은 도쿄에서 가장 화려한 ‘가이유’ 양식의 정원 중 하나이다. 정원의 강에는 일본에서 일곱 명의 행운의 여신 중 하나이며 원래 인도의 여신으로 알려진 벤자이텐에게 봉헌한 작은 절이 있는 섬이 있다. 섬을 연결하는 돌다리는 만월교라고 불리는데 그 모양은 반원이지만 물에 비친 다리의 모양과 함께 완전한 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마 별궁의 정원은 도쿄에서 유명한 또

다른 ‘가이유’ 정원이다.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이 정원에서 가장 유명한 경관은 세 개의 다리로 연결된 아름다운 조수 연못이다. 각각의 다리는 등나무 덩굴 격자 모양으로 되어 섬까지 연결되어 있다. 연못, 잔디 및 길의 배치는 에도 시대에 봉건 영주들이 소유했던 별장의 정취를 보여준다.

소위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풍경식 정원인 이바라키현의 미토에 있는 가이라쿠엔,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에 있는 겐로쿠엔 그리고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에 있는 고라쿠엔도 이러한 종류이다.

메이지 시대 (1868-1912) 가 시작되면서 넓은 잔디와 공간을 활용하는 서양의 영향이 전통적인 일본 정원 디자인에까지 미치기 시작하였다. 도쿄의 신주쿠 교엔 국립정원이 한 예이다.



이시카와현에 있는 겐로쿠엔
(사진제공 : AFLO)